

# 김희락의 『고식』에 수록된 「중용강의」 조대의 구성과 내용

---

김기엽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한문학 전공

sinchay@hanmail.net

---

I. 머리말

II. 정조의 우대를 통한 초계문신 활동과 『고식』의 구성

III. 『고식』의 「중용강의」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 내용

IV. 맺음말

---

## I. 머리말

---

『고식(故寔)』은 조선 후기의 문인 김희락(金熙洛, 1672~1759)의 문집이다. 『고식』은 1878년(고종15) 김희락의 손자인 김철수(金喆銖)가 편집하여 목활자본으로 간행했다.<sup>1</sup> 한편, 고식(故寔)은 정조가 초계문신(抄啓文臣)들과 글로써 학문적인 토론을 하던 방식을 일컫기도 한다. 정조와 초계문신들은 경전과 주자서(朱子書)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정책에 응용하고자 했다. 정조는 1794년에 선발한 초계문신들과 『대학』, 『주자대전(朱子大全)』, 『국조고사(國朝故事)』에 대해 토론·문답하고 이를 ‘초계고식(抄啓故寔)’이라고 불렀다. 초계고식은 예컨대 『국조고사』의 토론을 통해서는 경사강의(經史講義)와 같은 형식으로 세종부터 영조까지 역대 선왕들의 정책을 초계문신들과 평가하고 이를 당대의 시무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정조가 초계고식을 통해 초계문신들과 문답한 내용들은 『홍재전서(弘齋全書)』 제129권부터 제134권까지 「고식(故寔)」이라는 편명으로 실려 있다.<sup>2</sup>

정조가 실행한 고식(故寔)에는 김근순(金近淳)·이존수(李存秀)·류이좌(柳台佐)·김희락(金熙洛)·구득로(具得魯)·신현(申絢)·강준흠(姜俊欽)·홍명주(洪命周)·이영발(李英發)<sup>3</sup>·홍석주(洪奭周)·김계온(金啓溫) 등의 문인들이 규장각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NRF-2022S1A5B5A16056963), 2023년 12월 15일 제18회 동양학연구원 산하연구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함.

1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s://www.ugyo.net>).

2 正祖, 『弘齋全書』 권129 「故寔1·大學」; 正祖, 『弘齋全書』 권130 「故寔2·朱子大全1」; 正祖, 『弘齋全書』 권131 「故寔3·朱子大全2」; 正祖, 『弘齋全書』 권132 「故寔4·朱子大全3」; 正祖, 『弘齋全書』 권133 「故寔5·朱子大全4」; 正祖, 『弘齋全書』 권133 「故寔5·朱子大全4」; 正祖, 『弘齋全書』 권134 「故寔6·國朝故事」.

3 운곡 이희발(1768~1850)의 初名이다.

초계문신의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했다.<sup>4</sup> 당시 초계고식 토론에 참여했던 홍석주는 「초계고식 서문(抄啓故寔序)」을 남겼는데, 이 글을 통해 고식(故寔)이 ‘고사를 인용하여 실제에 적용한다.’는 뜻을 알 수 있다.<sup>5</sup>

한편, 김희락의 문집 또한 『고식(故寔)』이고 그의 호는 고식현(故寔軒)으로 알려져 있다. 김희락은 퇴계 학맥의 이상정(李象靖)을 사사(師事)한 영남 문인이다. 그는 1792년(정조16)에 정조의 명으로 도산서원에서 실시한 빈흥과에서 선발되었고, 1794년(정조18)에 류이좌(柳台佐)와 함께 정조의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었다.<sup>6</sup>

김희락의 문집 『고식』은 천(天)·지(地)·인(人)의 3책 5권으로, 그 체제는 대부분 김희락이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면서 정조의 명에 따라 지어 올렸던 응제문(應製文)과 정조의 어비(御批)로 구성되어 있다. 『고식』 3책 5권 중 천(天)은 『고식총서(故寔總叙)』와 권1, 지(地)는 권2와 권3, 인(人)은 권4와 권5에 해당한다. 『고식』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단일 문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은 지(地)의 권2 「중용강의(中庸講義)」이다. 이 「중용강의」는 정조가 『중용』에서 각 장의 내용을 뽑아 조목별로 묻고 김희락이 조대(條對)한 내용이다.

김희락의 『고식』에 수록된 「중용강의」의 내용은 『홍재전서』 권82 「경사강의(經史講義)」19·중용(中庸)3과 권83 「경사강의(經史講義)」20·중용(中庸)4에서 김희락이 조대한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홍재전서』의 「경사강의」는 주

- 
- 4 김문식·신승운, 『홍재전서』 해제, 1998: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5 金澤榮, 『麗韓十家文鈔』 권8 韓洪淵泉文, 洪奭周, 「抄啓故寔序」, “고사를 인용하여 오늘날을 바로잡고 그것으로써 경계를 올리는 것은 홍문관에서 하던 일이고, 의심나는 대목을 정해 그 시비(是非)를 질문하는 것은 시강원에서 하던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고식이라 하니, 고식이란 고사를 인용하여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蓋引古訂今 因以陳戒者 弘文館之故事也 設爲疑難 質其是非者 侍講院之仰質也. 兼是二者之謂故寔 故寔者 引古事而致之實用之謂也]”. 이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DB를 참고하되 윤문을 가했다. 이하 한국문집총간의 원문 번역도 이와 같다.
  - 6 김문식,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동양학』 76(2019), 211~236쪽.

로 정조의 질문과 그에 대한 신하들의 답변이지만, 『홍재전서』의 「고식」은 주로 신하들이 질문하고 정조가 답변한 내용이라는 차이를 보인다.<sup>7</sup> 『고식』이라는 김희락의 문집 이름은 정조의 ‘고식’ 제도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고식』 3책 5권 가운데 권1의 「주자대전강의십조차자(朱子大全講義十條箭子)」·「국조고사강의(國朝故事講義)」 등만 『홍재전서』 「고식」의 내용과 일치할 뿐이고, 나머지 『고식』 권2의 「중용강의」 내용은 『홍재전서』 「경사강의」의 중용(中庸) 부분과 부합하며, 『고식』 권5의 부록은 정조의 고식과는 무관한 영남 문인들의 창작이다.

비록 김희락의 『고식』은 정조의 어비(御批)와 김희락이 답변한 「중용강의」 및 개인 창작과 부록이 혼재한 문집이지만, 『홍재전서』 「경사강의」에서 일부 발췌한 조대 내용에 비해 김희락의 「고식」 「중용강의」에서는 초계문신으로서 김희락이 본인이 조대한 내용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초계문신 김희락의 문집이 『고식』으로 명명된 연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요구되고, 『고식』을 통해서 군주에게 올리는 조대의 투식 및 그 내용을 비교적 풍부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고식」 「중용강의」의 분석을 통해서도 김희락이 경전 『중용』을 해석하는 태도와 학문적 깊이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김희락의 초계문신 활동 경위를 밝히면서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문집 『고식』의 구성을 살펴 『홍재전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변형된 김희락의 조대(條對)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식』 「중용강의」를 토대로 당시 정조의 『중용』 조문(條問)에 대하여 초계문신으로서 김희락이 조대한 실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7 이시연, 「正祖의 주자학적 『大學』 해석과 聖王論」,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3), 151쪽.

## II. 정조의 우대를 통한 초계문신 활동과 『고식』의 구성

김희락의 자는 숙명(叔明), 호는 고식헌(故寔軒),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가 초계문신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도산서원의 빈흥과(賓興科) 선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도산별시(陶山別試)의 시제(試題)가 지역 학자에게 익숙한 문체로 출제되었고 정조의 우대에 대한 영남 학자들의 보은(報恩) 의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1792년 정조가 시행한 도산별시에는 많은 영남 유생이 응했다.

도산별시의 설행 경위를 비롯하여, 김희락의 도산별시 빈흥과 입격 정보를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8</sup> 『교남빈흥록』에서 정조의 어고(御考)를 거친 「어고우등시권(御考優等試券)」에는 강세백(姜世白)·김희락(金熙洛)·김상구(金象九)·조심(曹深)이 작성한 과부(科賦) 4편이 실려 있다. 김희락은 장원을 차지한 강세백과 같은 삼상(三上)의 점수를 받아, 직부전시(直赴殿試)의 은전(恩典)을 받았다.<sup>9</sup> 이를 계기로 서울로 입성한 김희락은

8 김기엽, 「『교남빈흥록』의 판본과 御考·科賦·試券에 대한 소고」, 『동방한문학』 87(2021), 163~192쪽. 1792년(정조16) 3월 3일에 정조는 이만수(1752~1820)를 파견하여 3월 19일 옥산서원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24일에는 도산서원에 致祭하게 한 뒤, 御題 2통을 내려 치제하는 날 참가한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게 했다. 그리고 道臣에게 지시하여 傳教, 祭文, 閣臣과 差備官의 座目, 入格榜目, 入門한 사람과 시권을 제출한 사람의 수효, 入格한 시권 중에서 우수작 4편을 모아서 『경림빈흥록』의 범례를 따라 간행하여 바치고, 그 冊板은 陶山에 보관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교남빈흥록』이다.

9 『日省錄』 正祖 16년(1792) 4월 4일, “부에서 삼상을 맞은 유학 강세백과 생원 김희락은 모두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삼중을 맞은 진사 김상구, 유학 조심에게는 각각 2분씩을 주고, 삼하를 맞은 유학 조거신, 진사 광선·권형복, 생원 권사호·이태순, 유학 김형진·남한조에게는 각각 1분씩을 주고, 초삼하를 맞은 유학 이정영 등 18인과 의에서 초삼하를 맞은 종사랑 조목수에게는 각각 종이 5권, 붓 5지, 먹 3홀씩을 사급하라. 그리고 입격한 사람들을 본도의 감영에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하고 후하게 대접하며, 시권을 일일이 나누어 주라(賦三上幼學姜世白·生員金熙洛 竝直赴殿試 三中進士金象九·幼學曹深 各給二分 三下幼學趙居信·進士郭瑢·權馨復·生員權思浩·李泰淳·幼學金馨進·南漢朝 各給一分 草三下幼學

1794년에 규장각 강제문신(講製文臣)으로 뽑혀 초계고식에 참여했고 이후로 1800년까지 삼조(三曹)의 낭관(郎官)과 사헌부 지평·사간원 정언을 역임했다.<sup>10</sup> 정조로부터 도산별시 이후로 지속적인 은전(恩典)을 받아 온 김희락은 『고식(故寔)』에서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과 관련한 정조의 전교를 인용하고 자신이 외람되이 발탁되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sup>11</sup> 초계고식은 정조의 인재 선발과 양성 의도에서 비롯한 제도로, 아래 인용문에 고식 제도를 설명한 경위가 드러나 있다.

이여 반궁 유생들 응제에 대해 손수 비권(批圈)을 가하기도 하였다. 옛 조례에는 문신(文臣)이 응제를 하면 문형(文衡)의 답안지만 특별히 어필(御筆)로 직접 고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필 고과라면 그 사체가 보통과는 아주 다르므로, 지금 부터는 비록 초시라도 어필 고과를 받는 자이면 열 번 초시를 보더라도 열 번 다 회위(會圍)에 응시할 기회를 주도록 명했다. 반궁 유생들 친시(親試) 제도는 정유년(1777, 정조1) 겨울에 시작된 일이고, 시권을 어필로 고과하기는 임인년(1782, 정조6) 봄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또 신축년에는 강제(講製)에 임한 문신 중에 37세 이하로 괴권(槐圈)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골라 경사(經史)를 강하고 시문(詩文)을 짓도록 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식견을 넓히고 그 식견을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당장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송(宋)나라에서 강독관(講讀官)이 강독을 안 하는 날에는 한(漢)나라의 고식(故寔)을 진강하던 것을 모방하여 경(經)·사(史)·자(子)·집(集) 그리고 국조문헌(國朝文獻)의 순

---

李鼎儼等十八人 義草三下從仕郎趙沐洙 各給紙五卷·筆五枝·墨三笏. 入格諸人招致木道監營, 設樂厚饋之 試券一分給”.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11 金熙洛, 『故寔』「敬書嶠南賓興錄傳教後」, “傳曰 鄒魯之鄉 能守吾道 曠感於先正 眎嘉於多士 特設試取於陶山致祭之日者 意豈泛然? … 臣熙洛 猥以菲材特蒙踰擢 弗勝惶縮 拜手稽首 謹識”.

으로 익히도록 하였다. 경(經)으로는 『중용』·『대학』·『논어』·『맹자』·『시경』·『서경』·『주역』·『의례』·『주례』·『예기』·『춘추』이고, 사(史)로는 『사기』·『전한서』·『후한서』·『당감(唐鑑)』·『송명신록(宋名臣錄)』 등이고, 자(子)는 『오자(五子)』, 집(集)은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이며, 국조문헌으로는 『국조보감(國朝寶鑑)』·『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문헌비고(文獻備考)』·『경국대전(經國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 등인데, 이것들을 상하가 서로 질의 논란의 자료로 삼는 것이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대관(大官)에서부터 한주(翰注)에 이르기까지 이 경로를 거친 자들이 많고 또 인재 양성과 인물 취택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sup>12</sup>

정조는 어필 고과(御考)와 반궁 유생을 대상으로 한 친시(親試)의 의도가 인재 선발에 있고, 초계고식이 옛날 송나라에서 한(漢)나라의 고식(故寔)을 진강하던 전례를 모방한 것임을 밝혔다. 정조의 말을 통해 고식에서 경(經)·사(史)·자(子)·집(集) 그리고 국조문헌(國朝文獻) 등을 토론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의 인재 선발 의도는 『고식』 천(天)에 수록된 「고식총서(故寔總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김희락은 여기에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인용하여 초계문신 제도와 내력을 서술했다.

12 正祖, 『弘齋全書』 권11 「序引四·翼靖公奏藁典禮類叙」, “仍以泮儒應製. 手加批圈. 而故例文臣之應製也. 惟文衡之券. 特用御筆親考. 則御考事體. 迥異常格. 命自今御考初試者. 雖十度初試. 許赴十次會圍. 而泮儒親試. 始於丁酉之冬. 試券御考. 始於壬寅之春. 又於辛丑. 抄講製文臣三十七歲以下參槐園人. 講以經史. 製以詩文. 蓋欲長其識解. 措諸事務. 以需當世之用. 而倣宋朝講讀官於不講日進漢故寔之意. 命以經史子集國朝文獻. 爲次第. 經則庸學語孟詩書易三禮春秋. 史則史記前後漢書唐鑑宋名臣錄. 子則五子. 集則陸宣公奏議. 國朝則國朝寶鑑五禮儀文獻備考經國大典大典通編. 以爲上下質難之資. 至今數十年之間. 自大官至翰注. 多從此出. 其於籲俊用人之方. 未必無所補也”.

1781년에 정부에 명하여 승문원(承文院)의 참상종삼품이하(參上從三品以下)의 37세 이하의 문신을 초(抄)하여 보고하게 하고 내각으로 하여금 강제(講製)의 규정을 제정하여 사서삼경을 윤번(輪番)으로 강하여 익히게 하였다. 이것을 마치면 사학(史學)을 강하고 제술(製述)은 평가하되 매월 삼순(三旬)에 강경 시험 2차례, 제술 시험 1차례를 치르고 시임(時任)과 원임(原任) 각신(閣臣)으로 채점하여 올리면 왕이 친히 우열을 사정(査定)하여 승진과 파직의 자료로 삼고 때때로 훈회(訓誨)를 가하여 정성을 다해 게을리하지 않았다. 1799년에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명하여 옥당(玉堂)과 춘방(春坊)의 고사에 따라 왕이 친히 시험할 적에 「고식(故寔)」이라는 제목으로 기한을 넉넉히 주어 조용히 연구하게 하였다. 경사자집(經史子集)과 국조(國朝)의 문헌을 분리 참고하게 하고 월별로 나누어 시험하여 의문점을 밝히고 자세히 해설하여 국가가 장려하는 뜻에 부응하게 하고 서로 토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열차례의 선발을 거치게 하였다. 이때 공경대부의 반수 이상이 이 선발에 든 선비가운데 배출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3</sup>

정조의 인재 선발 정책에 의해 초계문신으로 발탁되고, 정조의 인재 양성 정책에 의해 설행된 초계고식에 참여한 김희락의 호가 ‘고식현(故寔軒)’으로 알려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sup>14</sup> 김희락은 정조의 의도에 부응하듯,

13 金熙洛, 『故寔』天「故寔總叙」, “… 五年辛丑 命政府抄啓槐院 參上·參外三十七歲以下 令內閣著講製之規 講以四書·三經 輪回肄習 既畢 講史 製以論·策·序·記·說·議·辯題·跋咨文·奏文·表·箋·啟·詔·制·誥·頒敕文·教書·批荅·露布·檄·上樞文·箴·銘·頌·贊·古詩·律詩·排律 每月三旬二次試講 一次試製 令時原任閣臣計畫 上常親考優劣 以行黜陟 時加訓誨 至誠不倦. 二十三年己未 命抄啓文臣親試 做玉堂·春坊故事 書進之例 以故寔命題 優其日限 使之從容探頤 用經·史·子·集及國朝文獻 分朔排試 難疑敷衍 以副陳勉 以寓討論 凡十週 後之公卿大夫 大半是選中人 彬彬多文學之士矣. 朝寶鑑經國增典 …”.

14 김희락의 호 故寔軒에 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김희락의 행력을 고려해 볼 때, 일견 김희락이 ‘故寔’으로 호를 삼은 것은 정조의 초계고식에 참여했던 초계문신으로서의 자부와 정조에 대한 感恩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인행(1758~1833)이 쓴



초계문신으로서 경사(經史) 및 『주자대전』, 『국조고사(國朝故事)』를 비롯하여 선현들의 주차(奏劄) 가운데 왕도에 관계되는 견해를 차자로 올렸고, 이를 본 정조는 김희락을 크게 칭찬하였다. 정조의 어비(御批)와 김희락의 조대(條對)를 중심으로 편집된 문집이 『고식』으로 명명된 것은, ‘고식’ 제도를 통해 신하들의 질문에 대한 정조의 답변을 모아 『홍재전서』에서 「고식」으로 명명한 것처럼, 문집의 이름 또한 정조의 ‘고식’ 제도를 모방하여 정조의 질문에 대한 김희락의 답변을 모아 ‘고식’이라 칭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식』에서 다른 영남 문인들의 창작으로 구성된 권5의 「부록」 내용이 비록 정조의 고식과는 거리가 멀지만, 문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김희락의 조대와 응제는 군주에게 올리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글이므로 『고식』으로 명명하여 문집을 후대에 남기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계문신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김희락의 조대는 정조로부터 고식의 전형(典型)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에 관한 대목은 『홍재전서』와 이인행(李仁行)이 쓴 그의 행장에 나타나 있다.<sup>15</sup>

김희락의 행장이나, 이상정의 문인록인 『高山及門錄』 권2(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2513-329)에는 김희락의 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김희락의 문집 『고식』을 간행하기 위해 책을 교정하던 이인행 등이 세상을 떠난 뒤에 손자 김철수가 이어서 책의 편차를 완성하고 발문을 썼는데, 이 발문에서 김철수는 책 말미에 逸稿와 附錄을 붙여 책을 간행하게 되었으며 ‘고식’이란 편명은 당시에 정조가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寔軒’이라는 현을 지어 御批諸編을 봉안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구절이 보이는데, 여기서 ‘식현’은 김희락이 아니라 김철수가 지으려 했던 명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김희락의 호가 후대인에 의해 뒤늦게 붙여진 것일 수 있고, 당초 이인행 등이 책을 간행하고자 한 주된 목적이 김희락이 초계문신으로서 지은 글을 후세에 전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고식’이라고 명명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둔다.

- 15 正祖, 『弘齋全書』 권130 「故憲二」; 李仁行, 『新野集』 권10 「司諫院正言金公行狀」, “지금 네가 전달한 여러 조목이 모두 고식의 체례에 제대로 맞기에, 내가 밤이 이슬하여 촛불이 다 탈 즈음 전례에 없이 비답을 내려 여러 문신들의 선창으로 삼는 것이다[爾所陳諸條 俱得故憲之體 故撥例賜批於夜闌燭跋之際 以爲諸文臣倡]”.

정조의 영남 우대 정책인 도산별시에서 선발되어 정조의 인재 양성 제도로 할 수 있는 초계고식에 참여한 김희락은 정조의 명으로 『영남인물고』의 편수까지 맡아 각별한 군신 관계를 보였다. 정조는 김희락에게 영남에서 선현의 일을 찬집한 문적이 별도로 있는지를 수소문하고, 김희락을 통해 상주의 정종로(鄭宗魯)·경주의 이정덕(李鼎惠)·진주의 박천건(朴天健)과 안동의 호계서원·예안의 도산서원 등에 통고하여, 한 달 내로 선현의 행적을 모으도록 했다. 이 일로 한 달 만에 무수히 많은 영남인이 선현의 문적을 가지고 상경했다. 정조는 1798년 10월 9일에 서둘러 수많은 문적을 접하고 영남 인재의 성대함을 칭찬한 뒤, 영남 유생들이 서울에 오랜 기간 체류하는 것을 걱정하여 그들이 가지고 올라온 문적을 즉시 초록하여 책으로 만들라고 명했으니 이것이 『영남인물고』이다. 『고식』에는 규장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규장각기주연설(奎章閣記注筵說)」이 있어, 무오년(1798) 8~10월의 기록을 통해 『영남인물고』의 편찬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sup>16</sup>

16 金熙洛, 『故臬』 권5 「奎章閣記注筵說」, “八月. 承命入鑄字所. 上問 嶺南有纂輯先賢文蹟否? 臣熙洛對曰 故大司諫臣鄭惟一纂名臣錄. 上曰 本孫持冊上來. 熙洛歸泮 考退溪集及文峯碣銘乃宋朝續名臣錄·東憲錄 失於兵燹 直入內閣 以實對. 上曰 更爲搜問. 粵三日 上令承旨蔡弘遠 傳命于臣熙洛 發書嶺南 卽雇人書告于鄭持平宗魯·李參議鼎惠·朴士人天健·安東虎溪·禮安陶山限一月鳩聚”; “十月初九日. 命熙洛·弘遠入侍. 都承旨李晚秀·假注書李弘謙 同被召命. 上曰 嶺人以文蹟事 無數上來云 果否? 弘遠曰 金熙洛 近日所處 極難堪. 上曰 爾何以無數招來? 熙洛對曰 鄉人爲風聲所動 私自相通 如是張皇 不勝悚惶. 上曰 何悚惶之有? 司謁持嶺蹟進 上顧晚秀曰 嶺南稱人才府庫 果然. 顧弘遠曰 嶺儒留連可悶. 與金熙洛 卽卽抄錄成冊. 顧熙洛曰 前月海東人物攷抄錄時 爾其與焉. 同事者幾人 幾日子當? 對曰 十餘人 四日畢役. 上謂弘遠曰 抄錄凡例 金熙洛知之. 限五日 會一處爲之. 弘遠對曰 千餘卷文蹟 五日內 萬無寫進之望. 上曰 五日已寬. 留連者 使之速還可也. 今番事 四百年盛舉. 爲嶺南 成出人物攷 當於榻前差之. 口呼前左議政蔡濟恭 爲總裁官 次呼編修官左承旨李祉永·前承旨蔡弘遠·前佐郎金熙洛·前兵曹判書權繼·前咸鏡監司李鼎運·前參判尹弼秉·前都正睦萬中·前承旨權坪·洪義浩·執義韓致應·前修撰沈奎魯·李錫夏·正言沈達漢·李基慶·李之珩·抄啓柳遠鳴·姜浚欽·洪命周·假注書李泳夏. 上顧熙洛曰 嶺南侍從上來者 幾人? 對曰 修撰金熙周·佐郎權應範. 上曰 次次書填. 又曰 成彥猷來否? 對曰 未來. 又曰 權正忱行錄來否? 臣及弘遠進曰 事係至重 不敢進入. 上曰 然矣. 此人行錄 豈可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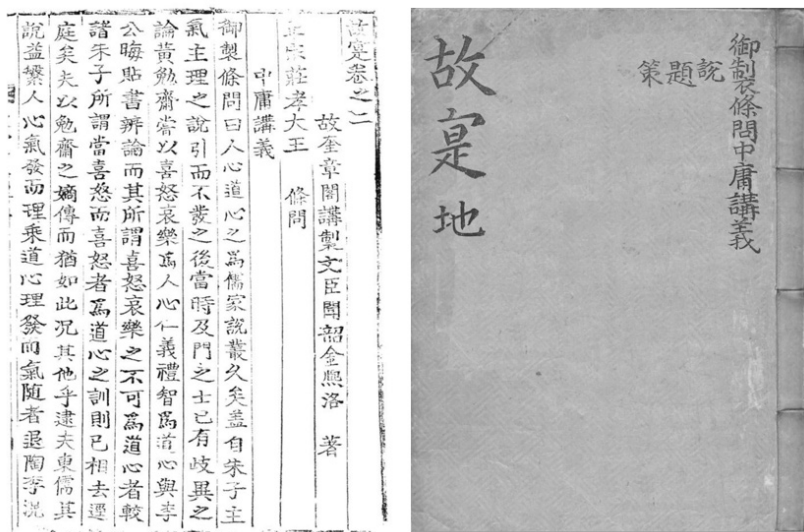


그림1-『고식』 地 표지(우)와 권2의 중용강의(좌)

김희락의 문집 『고식』은 천(天)·지(地)·인(人)의 3책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식』 천(天)은 『고식총서(故寔總叙)』를 비롯하여, 권1 「주자대전강의 십조차자(朱子大全講義十條笱子)」·「어비십조별유(御批什條別諭)」·「국조고사강의(國朝故事講義)」·「어선초계문신고식과강도계획방목(御選抄啟文臣故寔課講課講都計畫榜目)」 등 38장(張)이다. 지(地)는 권2 「중용강의(中庸講義)」 47장과 권3 「설(說)」·「제(題)」·「책(策)」 18장이고, 인(人)은 권4 시(詩)·율부(律賦)·명(銘)·찬(贊)·전문(箋文)·의(議)·서(序)·기(記)·변(辯)·전(傳)·상

關之? 只書生卒年 編入可也. 又曰 經書諺解 果誰爲之? 諸臣未及對. 上曰 予認柳眉巖希春爲之 令見嶺蹟 柳崇祖爲之 眞鉅儒也. 臣及弘遠進曰 柳崇祖蔚爲一代儒宗 五年大司成 協贊弘多. 上曰 然矣. 退往美洞 分受書寫紙. 翌日 加差前判書蔡弘履·前承旨李儒慶 齊會軍器寺成出. 中草後 上復嚴勅精選 召臣留關 校五子手圈 凡十二日乃出. 人物攷已成冊 伊日入啓. 將自內閣刊行 適值上候違豫 姑爲停止”.

량문(上樑文)·교서(敎書) 20장과 권5 전교(傳敎)·행록(行錄)·잡저(雜著)·서(書)·제문(祭文)·만사(挽詞)·부록(附錄) 42장이 실려 있다.

『고식』은 천(天) 권두에 「고식총서」가 있고 인(人) 권말에 권영하(權泳夏)와 김철수(金喆銖)의 발문이 있다. 『고식』 지(地) 표지에는 어제조문(御製條問) 중용강의(中庸講義), 설(說), 제(題), 책(策)으로 수록 문체들을 밝혀 적었는데, 『고식』 권2 「중용강의」(47장)의 분량은 2책인 지(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김희락의 시문(詩文)과 개인적인 창작을 제외하면, 설(說)에 「성즉이설(性卽理說)」·「유정유일운집궐중설(惟精惟一允執厥中說)」, 책(策)에 「환향책(還餉策)」·「팔자백선책략(八子百選策略)」·「위의책략(威儀策略)」, 의(議)에 「영성수성제의(靈星壽星祭議)」·「금양의(禁釀議)」, 변(辨)에 「금고문변(今古文辨)」이 있는데, 이 작품은 모두 정조의 하교를 받들어 지어 올린 글이다.<sup>17</sup>

김희락의 문집 『고식』의 전반적인 구성은 조대(條對)라는 글쓰기의 전형을 후대에 남기고 참고하기 위한 작품 선집류(選集類)나 유서(類書)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부록에서는 이인행(李仁行)의 행장을 비롯하여 이영발(李英發)·류이좌(柳台佐)의 만사, 남한조(南漢朝)·류범휴(柳範休)·이병운(李秉運)의 제문 등을 실음으로써 개인 문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 III. 『고식』의 「중용강의」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 내용

정조의 명에 따라 제술이나 강의에 임한 초계문신의 학문적 태도나 성향은 지역에 따라 다른 초계문신과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

17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s://www.ugyo.net>).

는 당대에 함께 활동했던 동향의 학자가 남긴 문집의 내용이 근거가 된다. 정조의 조정에서 김희락과 함께 초계문신으로 활동한 영남 문인으로는 운곡(雲谷) 이희발(李義發, 1768~1850)과 학서(鶴棲) 류이좌(柳台佐, 1763~1837)가 있다. 이희발의 『운곡집(雲谷集)』 권13~16과 류이좌의 『학서집(鶴棲集)』 권5~7에도 「중용강의조대(中庸講義條對)」가 정조의 조문(條問)과 함께 수록되어 있어 영남 문인들의 학문적 성향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의 초계문신 중 가장 어린 나이였다고 알려진 이희발은 『홍재전서』에 초명(初名)인 ‘이영발(李英發)’로 기록되어 있다. 훗날 순종의 아들 익종(翼宗, 효명세자)의 본명인 이영(李昷)과 일부 발음이 일치하여 이름을 부를 때 험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 ‘희발’로 개명했다.<sup>18</sup> 이희발의 이희발의 『운곡집』 가운데 정조에게 올린 조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하여, “영남 사람이 바탕(본질)이 많고 문채(문식)가 적다[嶺人多質少文].”라는 정조의 평가를 통해서도<sup>19</sup> 이희발이 학문에 있어 문예(문채)보다는 경전 이해(바탕)에 무게를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류이좌의 『학서집』 권1~2에 수록된 시 167제 중 류이좌가 초계문신으로서 응제한 시는 23제(題) 정도에 불과하지만,<sup>20</sup> 권5~7의 「중용강의조대」와 권8의 「대학문대(大學問對)」·「대학고식(大學故寔)」·「주자대전고식(朱子大全故寔)」·「국조고식(國朝故寔)」 등 정조의 초계고식에 대한 류이좌의 조대는

18 김기업, 「大山 李象靖 서찰의 편집 목적과 書節要類에 담긴 학맥의 嫡傳 의식: 『大山先生書節要』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9(2023), 292쪽. 李象靖의 손자 李永運 또한 같은 이유로 ‘李秉運’으로 개명했다.

19 柳致明, 『定齋集』 권34 「資憲大夫刑曹判書雲谷李公行狀」, “上召諸文臣于便殿 分席各坐 懸詩賦表策四題 皆出僻書 衆茫然不省 惟務塞券. 公以寧被重譴 不可強所不知 以白券進呈. 上批曰 嶺人多質少文 爾之事君不欺 白直可尙”; 李義發, 『雲谷集』 「年譜」, “應對中庸講義御製條問. …先生前後陳對 庸學講義及朱書國朝故寔 皆出於經學中來 而又是平日所蓄啓君經國之語. 故頻承睿獎 而嘗賜批曰 嶺人多質少文 事君之道 爲國之誠 精白一心 身不己有 予以是望於爾”.

20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학서집』 해제 참고.

『학서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류이좌는 초계문신으로 응제했을 때 수석을 차지한 시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습해 두지 않았고, 표전(表箋)이나 율부(律賦)의 문체는 아예 정리해 둘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sup>21</sup>

또 김희락의 종형 김희주(金熙周)는 김희락과 함께 이상정의 문하에서 수학한 문인으로, 그 또한 초계문신에 발탁되어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희주를 두고 “고집불통에 가깝다.”라고 표현한 정조의 평을 통해 강경(講經)에 치중하여 그의 학문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이희발·류이좌·김희주처럼 경학에 밝으나 제술을 달갑게 여기지 않은 학문적 풍토는 영남 지역 문인이 강경에 경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장에서는 『고식』에 수록된 「중용강의」의 내용을 살피면서, 영남 문인의 학문적 성향이 김희락의 『고식』 「중용강의」에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표1>은 『고식(故窺)』에 수록된 중용강의(中庸講義)의 조문(條問), 조대(條對)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21 심경호, 「학서 류이좌의 廣和와 應製에 관하여」, 『동양학』 76(2019), 157~209쪽.

22 金熙周, 『葛川集』 권10 「行狀」, “다음 날 단풍정에서 친히 시험 보여 2등으로 발탁하고 어필로 ‘어제의 시험 제목은 통과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김희주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라고 적고 『주서백선』과 『규장전운』을 하사하였다. 매달 초하루마다 큰 글씨 백 자를 써서 올리니 상이 ‘김희주의 서법은 기교는 부족하지만 진실로 덕이 있는 자의 필체이다.’라고 하고 점수를 으뜸으로 매기고 종이·묵·벼루를 하사하였으니 모두 상전이였다. … 한번은 친히 시험을 보이면서 표제를 걸었는데, 공이 영남 사람은 사록문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부해 준 시험지를 받고 부복하였다. 상이 남들을 따라 지어 올리게 하였으나 공이 몇 번이고 기복하니 ‘소신을 지켰으나 고집불통에 가깝다.’라고 하교하였다. 12월에 특별히 교지를 내려 6품에 올렸다. 5월 이후에 치러진 7번의 친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翌日親試於丹楓亭 擢第二 御筆題曰 昨日題難於鑿龍門 而金某可謂不負所知 賜朱書百選·奎章全韻. 月朔 書進百大字. 上曰 金某書法 才不足而真有德者之筆. 考第居首 賜紙筆墨 皆賞典也. … 嘗親試懸表題 公以嶺人不嫻四六 奉所頒紙俯伏. 上令隨衆製進 公再三起伏. 下教曰 不失本色而近於固滯 十二月. 因特旨陞六 以五月以後親試七次居魁也]. 김희주는 1792년 7월 泮製에서 잇달아 장원을 차지하여 정조로부터 급제를 하사받았고, 삼년상을 마치자 1795년에 급제자로 호명되어 규장각 講製文臣으로 加差되었다.

표1-『故寔』권2「中庸講義」

연번	장	조문 내용	『홍재전서』條對 수록 여부
1	序	人心道心朱子主氣主理退陶栗谷四七辨	×
2		東儒說人心道心近於性二發情二本	×
3		危者安之反微者著之反程子濂溪朱子說	×
4		精一執中或謂之用上工夫或謂之兼體用工夫	×
5		天命率性則道心之謂而羅整菴斥王陽明說	×
6		吾道失傳異言喧騰	×
7	第1章	天命之性朱子以爲兼人物言	×
8		理氣不可分先後	×
9		程子論揚子雲學修性不識性	×
10		修道之教章句釋禮樂刑政	×
11		性道教一篇綱領而第二節道字	×
12		弗睹弗聞未發境界	×
13		未發之中直指天命本然之理	×
14		自周子發主靜說	×
15		致中致曲致知	×
16		觀聖人之書必觀首章	×
17	第2章	獨稱仲尼儀禮檀弓鄭康成說	×
18	第3章	民鮮能可疑	×
19	第4章	知愚屬知賢不肖屬行	×
20	第5章	此章獨言不行	×
21	第6章	執其兩端用其中語類朱子說	×
22	第7章	程子以談虎神氣獨變論真知	×
23	第8章	擇中自博文而致服膺自約禮而致	×
24	第9章	三者皆倚於一偏章句舊本勝今本	×
25	第10章	先天方位乾南坤北	×
26	第11章	此以上十章卽此書第二大節	○

연번	장	조문 내용	『홍재전서』條對 수록 여부
27	第12章	費隱之義難言	○
28		費隱觀鳶飛魚躍最分曉	×
29		鳶魚不必專以天機言	×
30		鳶魚勿正心程子合言朱子新舊說	×
31	第13章	橫渠以衆人望人	×
32	第15章	行遠自邇登高自卑	×
33	第16章	鬼神形上形下	○
34		德字皆以得爲釋而鬼神之德獨釋性情功效	○
35		祭祀之神造化之神	×
36		朱子以洋洋如在謂有鳶飛魚躍底意	×
37		誠爲一篇樞紐	×
38	第17章	宗廟饗之蘇說孔安國說	×
39	第18章	文王無憂	×
40		續緒祗是泛言承業	○
41		詩箋以不窳爲先公禮註以后稷爲先公	×
42		追尊之禮達于上下而下文獨言喪祭	×
43		追王卽武王時事而此章爲周公之事	×
44	第19章	宗器鄭註爲祭器章句作先世所藏之器	○
45		時食章句引周官內饗	×
46		踐其位林次厓說	×
47	第20章	盛服之爲敬其說可疑	×
48	第22章	位育贊化育	○
49	第23章	致曲爲盡性之次朱子論顏孟動變	×
50	第24章	見乎蓍龜動乎四體錢吉士說	×
51	第26章	首句引起劈空下一故字	×
52	第27章	尊德性道問學只言存心致知不及力行	×
53	第28章	呂藍田三項說	○



연번	장	조문 내용	『홍재전서』 條對 수록 여부
54	第30章	祖述堯舜以下四者韓古遺說	×
55		持載覆幘錯行代明即前章博厚高明悠久	×
56	第31章	聰明叡智生知之質	×
57		語類朱子睿智禮智便是一物說可疑	○
58	第32章	唯天下至誠一節與首章致中和節節相似	○
59		大經大本錢吉士陸稼書仇滄柱說	×
60	第33章	三言微顯	×
61		先愼獨後戒懼	○
62		無聲無臭形容不顯之妙	×

『고식(故寔)』 권2에는 『중용』 서문부터 말미의 33장까지 중용강의(中庸講義)에 관한 정조의 조문(條問)과 김희락의 조대(條對) 62항이 충실히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홍재전서』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는 11장 「此以上十章 卽此書第二大節」, 12장 「費隱之義 難言」, 16장 「鬼神形上形下」·「德字皆以得爲釋而鬼神之德 獨釋性情功效」, 18장 「續緒祇是泛言承業」·「追王 卽武王時事 而此章爲周公之事」, 22장 「位育贊化育」, 28장 「呂藍田三項說」, 31장 「語類朱子睿智禮智便是一物說可疑」, 32장 「唯天下至誠一節與首章致中和節 節相似」, 33장 「先愼獨後戒懼」 등의 조대만 수록되어 있다.

정조는 1781년(신축) 선발의 초계문신, 1783년(계묘) 선발의 초계문신, 1784년(갑진) 선발의 초계문신에게 각각 『중용』에 관한 조문(條問)을 내어 조대(條對)하게 하고, 그것을 1785년(을사)에 초계문신 서형수(徐澄修)로 하여금 각각 1권씩으로 편찬하도록 했다.<sup>23</sup> 이후 1794년(갑인) 선발의 초계문신을 대상으로도 『중용』 조문을 내어, 그에 대한 조대 2권을 초계문신 이노춘

23 심경호, 「正祖의 經學類 書籍 御定·御命撰과 經學思想」, 『서지학보』 21(1998), 75~136쪽.

(李魯春)에게 편찬하게 했다.<sup>24</sup> 이 「중용강의」의 의의를 「군서표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용(中庸)』은 상달(上達)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가장 많으므로 정자(程子) 문하(門下)의 여러 학자들까지도 이미 노불(老佛)에 빠지는 잘못을 저질렀다. 쇄소(灑掃)·응대(應對)에서 정의(精義)·입신(入神)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같은 이치이고 중화(中和)와 비은(費隱)까지도 이 마음과 이 이치의 체용(體用)에 불과한 것인데, 어째서 하학(下學)을 놔두고 바로 상달(上達)을 바라는가. 이 편의 질문들은 모두가 평이하고도 실제적이면서 토론해야만 할 중요한 공부들이다. 물론 이에 답한 내용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컨대 『중용』을 읽는 이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의문들이다.<sup>25</sup>

「군서표기」는 『중용』에서 말하는 이치의 체용에 주목하여, 「중용강의」의 의의를 하학 및 실질적인 공부를 위해 필요한 토론의 장이 됨에 있다고 밝혔다. 『홍재전서』와 『고식(故窻)』 권2에 공통으로 수록된 정조의 첫 조문(앞의 표 연번26)은 11장 앞의 열 장이 『중용』에서 두 번째 큰 마디[第二大節]임을 전제하고, 첫 장의 핵심인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첫 장의 공효인 천지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 등이 이상의 열 장에 언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 장 이상의 열 장은 곧 이 책의 두 번째 큰 마디이니, 주자가 이른바 ‘자사(子思)

24 正祖, 『弘齋全書』 권181 「羣書標記三·中庸講義六卷【寫本】」, “條問辛丑選一卷 條問癸卯選一卷 條問甲辰選二卷 乙巳命抄啓文臣徐澄修編次. 條問甲寅選二卷 戊午命抄啓文臣李魯春編次”.

25 正祖, 『弘齋全書』 권181 「羣書標記三」, “中庸一書 說上達處最多. 故自程門諸君子 已不免淫於老佛之病. 夫灑掃應對 精義入神 貫通一理 而中和費隱 亦不過此心此理之體用 則顧何可捨下學而徑求上達哉? 此編發問 專就平平實實地討論喫緊工夫. 對之者未必皆得正義 而要爲讀中庸者不可關之疑云”.

가 부자(夫子)의 말을 끌어다가 첫 장의 뜻을 밝힌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한번 경문(經文)을 가지고 서로 참고하여 비교해서 보면 의문스러운 것이 없을 수 없다. 계신공구(戒愼恐懼)는 첫 장에서 공부의 핵심을 가리켜 보여 준 것인데 이 위의 열 장에는 어찌하여 발휘(發揮)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며, 천지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은 첫 장에서 공효(功效)의 극치를 미루어 논한 것인데 이 위의 열 장에는 어찌하여 그것에 대해 언급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가? 천명지성(天命之性)은 오로지 본연(本然)으로써 말한 것인데 지우(知愚)와 현불초(賢不肖)는 모두 기질(氣質)로써 말한 것이고, 중화(中和)의 중(中)은 오로지 미발(未發)로써 말한 것인데 시중(時中)과 용중(用中)은 모두 이발(已發)로써 말한 것이다. 단지 서로 반대되는 것만 보이고 서로 발명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니, 어디에 그 첫 장의 뜻을 풀이한 것이 있는가?<sup>26</sup>

정조는 첫 장의 핵심과 공효가 드러나지 않고, 또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을 비롯하여 중화(中和)의 중(中)이 가진 미발(未發)의 성격과 시중(時中)과 용중(用中)이 가진 이발(已發)의 성격 등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조문을 내렸다. 이에 관해 김희락이 올린 조대는 『홍재전서』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주 부자(朱夫子)가 이미 말하기를 “문장은 비록 접속되지 않지만 뜻은 사실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험 삼아 뜻만으로써 열 장 안에서 거슬러 찾아보자면, 먼저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의 경(敬)과 사(肆)의 구별을 말하여

26 正祖, 『弘齋全書』 권83 「經史講義十九·中庸三」; 金熙洛, 『故寬』 권2 「中庸講義」, “此章以上十章 卽此書之第二大節 朱子所謂子思引夫子之言 以明首章之義者是也. 試就經文參互較看 則不能無可疑者. 戒愼恐懼 首章所以指示工夫之肯綮者 而以上十章 何無一言發揮? 天地位萬物育 首章所以推論功效之極致者 而以上十章 何無一言提及也? 天命之性 專以本然言 而知愚賢不肖 則皆以氣質言之 中和之中 專以未發言 而時中用中 則皆以已發言之. 祇見其相反 而未見其相發 則惡在其釋首章之義耶?”

계구(戒懼)의 뜻을 이어받았고 다음에는 대순(大舜)과 안자(顔子)와 자로(子路)의 지(知)와 인(仁)과 용(勇)을 말하여 계구의 공부를 제시하였습니다. 민선능(民鮮能)은 걱정을 하는 말이고 불능수(不能守)는 경계시키는 말이고 색은행괴는 금지시키는 말이고 반도이폐는 책려하는 말입니다. 은연중에 민(民)과 물(物)을 동포로 여기는 기상이 있으니, 위육(位育)의 뜻이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賢)하기도 하고 불초(不肖)하기도 해서 기질(氣質)이 각각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바로잡아 변화시켜서 천명(天命)의 성(性)을 회복하도록 하였고, 시중(時中)이니 용중(用中)이니 하여 처지가 각각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미루어 요약하여 미발(未發)의 경계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대개 성인(聖人)의 문자(文字)는 본디 엄밀하여, 해당 구절을 곧바로 풀이하는 훈고가(訓詁家)의 말과는 애당초 같지 아니합니다. 요컨대 문장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서도 뜻이 서로 이어지는 곳을 찾아내야만 상반됨이 없이 서로 발명하고 있는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sup>27</sup>

김희락은 ‘문장은 이어지지 않아도 뜻은 이어진다.’라는 주희의 말을 의지하여, 위육(位育)의 뜻이 열 장 안에 녹아 있고 기질이 서로 보완되어 천명의 성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문장이 끊어지는 듯해도 서로 이어지는 곳을 찾아낸다면 서로 발명하는 뜻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홍재전서』와 『고식(故寢)』 권2에 공통으로 수록된 정조의 첫 조문에 대해서, 『고식』 권2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는 『홍재전서』의 조대와 다른

27 正祖, 『弘齋全書』 권83 「經史講義十九·中庸三」, “熙洛對. 朱夫子既曰 文雖不屬而意實相承. 試嘗以一意字溯求乎十章之中 則先言君子小人敬肆之別 以承戒懼之意 次言大舜顔子子路之知仁勇 以示戒懼之工. 民鮮能則憂之 不能守則戒之 隱與怪則禁之 半塗廢則責之. 隱然有民物同胞底氣象 則位育之意亦不外是 而賢不肖之氣質各異處 必使之矯揉變化 以復乎天命之性 時中用中之地頭各異處 必欲其推而約之 以至乎未發之境. 蓋聖人文字 本自嚴密 未嘗如訓詁家之言直釋當句. 要當於文不屬中 拈出意相承處 可以知無相反而互相發之意耳”.

내용이 실려 있다.

주자가 말한 ‘뜻은 사실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意實相承].’ 4글자는 두 번째 마디인 열 장의 뜻을 덮습니다. 중용(中庸)·반중용(反中庸)·선능(鮮能)·중용(中庸)·의중용(依中庸)과 같은 말들은 존성(存省)에 속하면서 계신공구(戒愼恐懼)의 뜻이고, 지(知)·인(仁)·용(勇)·고르게 하고·사양할 수 있고·밝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들은 수도(修道)에 속하면서 천지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의 뜻입니다. 지혜롭거나 어리석고 어질거나 불초한 이들도 기질을 바로잡아서 천명의 본성을 회복하고, 이발(已發)의 지점에서 공부하지만 미발(未發)의 중(中)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열 장은 바로 첫 장에서 뜻을 베푼 것이니 서로 발명하고 서로 뜻이 이어짐이 무엇이 이것보다 크겠습니까?<sup>28</sup>

『홍재전서』와 『고식』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는 다른 내용이지만, 뜻이 서로 이어진다는 주희의 말을 인용하고 이를 토대로 각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반적인 논리와 서술 구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첫 장의 핵심인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첫 장의 공효인 천지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의 뜻이 이상의 열 장에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정조에게 강조하려는 김희락의 의도는 『홍재전서』와 『고식』의 조대에서 비록 내용은 다르나 의미는 비슷하게 전달되었다.

1797년(정사), 1798년(무오) 연간의<sup>29</sup> 『중용강의』 조문은 “君子之道 費而

28 金熙洛, 『故毫』 권2 「中庸講義」, “臣熙洛對曰 朱子以意實相承四字 蔽二節十章之旨. 如曰中庸·反中庸·鮮能·中庸·依中庸者 存省之屬而戒懼之意也. 如曰知·仁·勇·可均·可辭·可蹈者 修道之屬而位育之意也. 知愚·賢不肖 矯揉氣質而復天命之性也. 時中·用中 發處用工而驗未發之中也. 此十章正是首章行義 相發相承 孰有大於是耶?”.

29 『학서집』 권5 「중용강의조대1」에는 “抄啓應製○丁巳”이라는 소주가 적혀 있고, 『운곡집』 「연보」에는 이희발(=이영발)이 무오년(1798)에 “중용강의 어제 조문에 응대했다.”라고 기

隱”의 비은(費隱)의 뜻을 묻는 것이었다. 『중용장구』는 비(費)는 ‘用之廣’, 은(隱)은 ‘體之微’라 했는데, 이를 근거로 정조는 리(理)의 체용(體用)에 관하여 물음을 내렸다.

비은(費隱)의 뜻은 말로 하기가 어렵구나. 쪼개서 말하자니 둘이 되고 합쳐서 말하자니 쉬이 섞인다. 형기(形氣)를 뛰어넘어서 찾아보면 도(道)의 비(費)한 곳을 볼 수가 없고 형기에 집착하여 찾아보면 도의 은(隱)한 곳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분분한 의견이 제대로 맞는 말이 드물고 본지를 쉬이 잃게 되는 까닭이다.

시험 삼아 주자의 뜻으로써 자사의 취지를 거슬러 찾아서 반복하여 깊이 궁구하여 참뜻을 집어내 보면, 불가유(不可遺)와 불가견(不可見)이라는 두 마디가 그 뜻을 다한 말이다. 지금 저 하늘을 채우고 땅에 서리어 뻑뻑하고 충충한 것들이 크거나 작거나 정밀하거나 거칠거나 할 것 없이 각각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은, 어느 것인들 당연(當然)한 이치가 아니겠으며 도체(道體)가 존재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이른바 도(道)라는 것은 또한 아득하여 조짐이 없어서, 보고 들을 수 없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불가유(不可遺) 쪽에서 말하면 비(費)라고 하는 것이고 불가견(不可見) 쪽에서 말하면 은(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은(隱)이라는 것은 무극(無極)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고 비(費)라는 것은 태극(太極)이 내재하지 않는 물건이 없는 것이니, 비이은(費而隱)이라는 것은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거의 오차가 없을 듯한데, 어떠한가?<sup>30</sup>

록되어 있다.

30 正祖, 『弘齋全書』 권83 『經史講義二十·中庸四』, “費隱之義 難言哉! 析言之則爲二 合言之則易混. 超形氣而求之 則無以見道之費處. 泥形氣而求之 則無以見道之隱處. 此所以諸家紛然鮮得而易失者也. 試以朱子之意 溯求乎子思之旨 而反覆潛究 拈出眞詮 則不可遺 不可見 二語足以盡

『홍재전서』에는 정조의 조문에 대한 김희락의 조대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수록했다.

비은의 뜻은 나누어 말하면 둘이 되고 합쳐서 말하면 쉽게 섞입니다. 반드시 나누어 말하면서 합해서 말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맞는 말이 됩니다. 성상께서 하문하신 말씀 가운데 불가유(不可遺)와 불가견(不可見)이라는 것은 바로 자사가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성상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극과 태극은 조화(造化)를 겸하여 말한 것이고, 비은은 도리(道理)에 나아가 말한 것입니다. 대개 이 도리가 비록 조화 안에 들어 있지만, 조화를 말하면 더 폭넓은 개념이고 도리를 말하면 더 실상에 가까운 개념입니다.<sup>31</sup>

김희락은 비은(費隱)에 대해 자사도 미처 밝히지 못한 것을 정조가 깊이 이해하고 말한 것임을 칭송하고, 도리가 조화에 속하므로 조화가 더 큰 개념이지만 도리가 조화에 비해 실상에 더 가까운 개념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정조의 의견과 해석을 인정하면서도 김희락 또한 비은(費隱)에 관하여 자신이 체득한 견해를 내어놓음으로써, 정조가 말한 비이은(費而隱)과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희락이 사사(師事)한 이상정은 『중용』을 해석하면서 혼륜(渾淪)과 분개(分開)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대적 개념들을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것

---

之. 今夫盈天蟠地 林林蔥蔥 大小精粗 各循其則者 何往非當然之理 而道體之所在哉! 然其所謂道者 又却冲漠無朕 有非聞見之所及. 故自其不可遺而言之 則謂之費. 自其不可見而言之 則謂之隱. 隱者無極之無聲無臭也, 費者太極之無物不在也. 費而隱者 猶言無極而太極也. 如是看則庶乎其不差. 未知如何?”

- 31 正祖, 『弘齋全書』 권83 「經史講義二十·中庸四」, “熙洛對. 費隱之義 析言則爲二 合言則易混 必分言而合言 始得. 聖問中不可遺不可見 政是發子思之所未發. 臣愚竊以爲無極太極 是兼造化而言 費隱是就道理而言. 盖此道理 雖寓於造化之中 而言造化則較寬 言道理則較實”.

을 넘어 소통(疏通) 혹은 회통(會通)의 입장에서 상관 개념들을 이해한 것으로 짐작된다.<sup>32</sup> 또 혼륜간(渾淪看)과 분개간(分開看)에 치우친 성리설 논쟁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통간(通看)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33</sup> 이에 김희락이 『중용장구』 2장~11장의 내용을 『중용장구』 1장과 조응시킨 것이나 ‘비은(費隱)’을 “分言而合言”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이상정의 학문 태도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용』 서(序)에서 정조의 「人心道心 朱子主氣主理 退陶栗谷四七辨」 조문<sup>34</sup>에 관한 김희락의 조대 내용에는 선배 학자들의 이기론(理氣論)에 관한 그의 관점이 드러난다.

혼륜설은 불상리(弗相離)이고 분개설은 불상잡(弗相雜)입니다. 혼륜에 나아가 말하면서 분개를 겸하여 말한다면 이기(理氣)가 곧 갖추어지지만, 혼륜만 말하고 분개를 말하지 않으면 이기(理氣)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문순공(이황)이 “인심(人心)은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것이고[氣發而理乘] 도심(道心)은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르는 것이다[理發而氣隨].”라고 하고 “이는 이기(理氣)를 겸하고 성정(性情)을 다스

32 전성진, 「대산 이상정의 『중용』 해석과 성리설의 이해」, 『공자학』 47(2022), 131~163쪽.

33 최석기, 「19세기 嶺南學派의 『中庸』分節說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46(2017), 159~195쪽.

34 金熙洛, 『故寔』 권2 「中庸講義」; 正祖, 『弘齋全書』 권82 「經史講義十九·中庸三」, “御製條問曰 人心道心之爲儒家說叢也久矣. 蓋自朱子主氣主理之說 引而不發之後 當時及門之士 已有歧異之論 黃勉齋嘗以喜怒哀樂爲人心 仁義禮智爲道心 與李公晦貽書辨論 而其所謂喜怒哀樂之不可爲道心者 較諸朱子所謂當喜怒而喜怒者 爲道心之訓則已相去徑庭矣. 夫以勉齋之嫡傳 而猶如此則況於其他乎? 逮夫東儒 其說益繁 人心氣發而理乘 道心理發而氣隨者 退陶李滉之說也 人心道心同是氣發理乘 而發者卽氣 所以發者卽理者 栗谷李珥之說也 而或有并詆二說者曰退陶知人心道心 有主氣主理之分 而獨不知理與氣之渾融無間 元不相離. 故理發氣隨之說 失之名言之間 栗谷知人心道心之同是氣發理乘 而獨不知發之時 已有理乘氣氣寓理之不同. 故於爲人爲道之間 未能分明劈破. 是數說者 胥相甲乙 聚訟不已 而至于今四七人道之辨 浩如烟海 莫可龜詰 果可以反覆討論而歷辨詳覈耶?”.



리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심은 리(理)가 없지 않으나 형기(形氣)에서 생겨나므로 기(氣)를 위주로 하여 말하였고, 도심은 기(氣)가 없지 않으나 성명(性命)에 근원하므로 리(理)를 위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는 혼륜에 나아가 말하면서 분개를 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성공(이이)은 “인심과 도심은 함께 기가 발하면 리(理)가 탄다[氣發理乘].”라고 하고,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리(理)이다[發者氣 所以發者理].”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저 혼륜만 말하고 분개를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난하는 학설이 이황과 이이의 설을 나란히 비난하는 것도 비록 신기한 듯하지만, 그러나 이황의 말씀이 주자의 정론이고 이이의 말씀은 문헌공 기대승의 초반 학설입니다. 그 학설은 지금 우리 문하에서 바로잡힌 것이 해와 별처럼 분명하니 신이 어찌 감히 다시 군말을 더하겠습니까?<sup>35</sup>

김희락은 율곡이 분개설은 말하지 않고 혼륜설만 주장한다고 하여 비판한 반면, 퇴계는 혼륜설과 분개설을 절충한 것으로 이해했다. 곧 통간(通看)을 주장하면서 퇴계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이는 퇴계학맥을 이은 영남의 학자로서 해당 지역 선대 학자의 학설을 두둔한 흔적이자 영남 선현의 이론을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식』 「중용강의」에는 이이의 학설을 따른 정조에게 백문(白文)을 반복해서 제출한 김희락의 처신을 기록하여, 영남 문인에게 수용되지 않은 이이의 경학 이론에 대해서 완고한 경학관을 드러낸 부분이 보인다.<sup>36</sup>

35 金熙洛, 『故毫』 권2 「中庸講義」, “臣熙洛對曰 … 渾淪說則弗相離 分開說則弗相雜. 就言渾淪而兼言分開 理氣乃備 只言渾淪而不言分開 理氣不明. 李文純曰 人心氣發而理乘 道心理發而氣隨. 蓋兼理氣統性情者心 則人心非無理也 而生於形氣 故主氣而言 道心非無氣也 而原於性命 故主理而言. 此就言渾淪而兼言分開也. 李文成曰 人心道心 同是氣發理乘 而發者氣 所以發者理. 此只言渾淪而不言分開也. 難者之并詆 雖若新奇 然文純所言 朱子之定論 文成所言 奇文憲 大升之初說 當日見正於師門者 昭如日星 臣何敢更贅也”.

36 金熙洛, 『故毫』 권2 「中庸講義」, “時論主栗谷說 上從之. 出給白文 命改進. 明日復進前說. 如是

## IV. 맺음말

---

이 연구는 김희락의 문집 『고식』의 구성을 살피고, 『홍재전서』에서 누락·변형된 김희락의 조대(條對) 내용과 그 실상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김희락의 『고식』에 수록된 「중용강의」의 내용은 『홍재전서』 권82 「경사강의(經史講義)19·중용(中庸)3」과 권83 「경사강의(經史講義)20·중용(中庸)4」에서 김희락이 조대한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 『홍재전서』의 「경사강의」는 주로 정조의 질문과 그에 대한 신하들의 답변이지만, 『홍재전서』의 「고식」은 신하들이 질문하고 정조가 답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김희락 『고식』의 권1의 내용이 주로 『홍재전서』 「고식」의 내용과 일치하고, 김희락 『고식』의 권2 「중용강의」는 『홍재전서』의 「경사강의」의 중용(中庸)과 내용이 부합한다.

정조가 설행한 도산별시 빈흥과에서 입격하면서 서울로 입성한 김희락은 1794년에 규장각 강제문신(講製文臣)으로 뽑혀 정조의 초계고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희락은 초계문신으로서 『주자대전』과 『중용』 및 『국조고사(國朝故事)』를 부연하고 선현들의 주차(奏劄) 가운데 천덕(天德)과 왕도에 관계되는 것을 참작하여 차자를 올렸고, 이 차자들로 인해 정조로부터 크게 칭찬받았다. 이후에도 정조의 명으로 『영남인물고』의 편수까지 맡아 김희락과 정조는 각별한 군신 관계를 보였다.

김희락의 문집 『고식』은 천(天)·지(地)·인(人)의 3책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식』 천(天)은 『고식총서(故寔總叙)』를 비롯하여, 권1 「주자대전강의 십조차자(朱子大全講義十條劄子)」·「어비십조별유(御批十條別諭)」·「국조고사강의(國朝故事講義)」·「어선초계문신고식과강도계획방목(御選抄啟文臣故

---

者三. 終不改 上亦不之罪也”.

寔課講課講都計畫榜目)」 등 38장(張)이다. 지(地)는 권2 「중용강의(中庸講義)」 47장과 권3 「설(說)」·「제(題)」·「책(策)」 18장이고, 인(人)은 권4 시(詩)·율부(律賦)·명(銘)·찬(贊)·전문(箋文)·의(議)·서(序)·기(記)·변(辯)·전(傳)·상량문(上樑文)·교서(敎書) 20장과 권5 전교(傳敎)·행록(行錄)·잡저(雜著)·서(書)·제문(祭文)·만사(挽詞)·부록(附錄) 42장이 실려 있다. 『고식』의 내용은 대부분 김희락이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면서 정조의 명을 따라 지어 올렸던 글과 정조의 어비(御批)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은 「중용강의」이다.

김희락의 문집 『고식』의 전반적인 구성은 조대(條對)라는 글쓰기의 전형을 후대에 남기고 참고하기 위한 가작 선집류(選集類)나 유서(類書)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부록에서는 이인행(李仁行)의 행장을 비롯하여 이영발(李英發)·류이좌(柳台佐)의 만사, 남한조(南漢朝), 류범휴(柳範休), 이병운(李秉運)의 제문 등을 실음으로써 개인 문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김희락과 당대에 함께 초계문신으로 활동했던 영남의 학자를 통해, 강제 문신으로서 제술이나 강의에 임하는 영남 문인의 학문적 태도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운곡 이희발은 『운곡집』에서 정조에게 조대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하여, “영남 사람은 바탕(본질)이 많고 문채(문식)가 적다 [嶺人多質少文].”라는 정조의 평가를 통해서도 그가 학문에 있어 문예(문채)보다는 경전 이해(바탕)에 무게를 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서 류이좌는 초계 문신으로 있을 때 수석을 차지한 시문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습해 두지 않았고, 표전(表箋)이나 율부(律賦)의 문체는 아예 정리해 둘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희락의 종형 김희주(金熙周)는 김희락과 함께 이상정의 문하에서 수학한 문인으로, 그 또한 김희락과 함께 초계문신에 발탁되어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조는 김희주를 두고 “고집불통에 가깝다.”라고 평했는데, 이와 같은 표현에서 강경(講經)에 치중한 그의 학문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고식(故寔)』 권2에는 『중용』 서문부터 말미의 33장까지 「중용강의」에 관한 정조의 조문(條問)과 김희락의 조대(條對) 62항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홍재전서』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는 11장 「此以上十章 卽此書第二大節」, 12장 「費隱之義 難言」, 16장 「鬼神形上形下」·「德字皆以得爲釋 而鬼神之德 獨釋性情功效」, 18장 「續緒祇是泛言承業」·「追王 卽武王時事 而此章爲周公之事」, 22장 「位育贊化育」, 28장 「呂藍田三項說」, 31장 「語類朱子睿智禮智 便是一物說可疑」, 32장 「唯天下至誠一節與首章致中和節 節相似」, 33장 「先慎獨後戒懼」 등의 조대만 수록되어 있다.

『홍재전서』의 「경사강의」 중용 부분과 『고식』의 「중용강의」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홍재전서』와 『고식』 권2에 공통으로 수록된 정조의 첫 조문에 대해서는 『고식』 권2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는 위 『홍재전서』의 조대와 다른 내용이 실려 있음을 확인했다. 『홍재전서』와 『고식』에 수록된 김희락의 조대는 비록 다른 내용이지만, 뜻이 서로 이어진다는 주희의 말을 인용하고 이를 토대로 각 용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반적인 논리와 서술 구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첫 장의 핵심인 계신공구(戒愼恐懼)와 첫 장의 공효인 천지위만물육(天地位萬物育)의 뜻이 이상의 열 장에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정조에게 전달하려는 김희락의 의도는 『홍재전서』와 『고식』의 조대에서 비록 내용은 달랐지만 의미는 비슷하게 드러났다.

김희락이 사사(師事)한 이상정은 『중용』을 해석하면서 혼륜(渾淪)과 분개(分開)를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대적 개념들을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소통(疏通) 혹은 회통(會通)의 입장에서 상관 개념들을 이해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혼륜간(渾淪看)과 분개간(分開看)에 치우친 성리설 논쟁에서 한 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통간(通看)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에 김희락이 『중용장구』 2장~11장의 내용을 『중용장구』 1장과

조응시킨 것이나 ‘비은(費隱)’을 “分言而合言”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이상정의 학문 태도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용』 서(序)에서 정조의 「人心道心 朱子主氣主理 退陶栗谷四七辨」 조문에 관한 김희락의 조대 내용에는 선배 학자들의 이기론(理氣論)에 관한 그의 관점이 드러난다. 김희락은 율곡이 분개설은 말하지 않고 혼륜설만 주장한다고 하여 비판한 반면, 퇴계는 혼륜설과 분개설을 절충한 것으로 이해했다. 곧 통간(通看)을 주장하면서 퇴계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이는 퇴계학맥을 이은 영남의 학자로서 해당 지역 선대 학자의 학설을 두둔한 흔적이자 영남 선현의 이론을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식』 「중용강의」에는 이이의 학설을 따른 정조에게 백문(白文)을 반복해서 제출한 김희락의 처신을 기록하여, 영남 문인에게 인정되지 않은 이이의 경학 이론에 대해서 완고한 경학관을 드러낸 부분이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김희락의 문집 『고식』에 주목하여 규장각 초계문신으로서 김희락의 조대가 수록된 문집 구성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고식』의 「중용강의」 내용을 검토하여 『홍재전서』에서 누락된 김희락의 조대(條對) 목록과 그 실재를 고찰했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미처 『고식』의 「중용강의」에 수록된 조대를 전부 살피지 못했으나, 추후 관련 연구에서 『홍재전서』·『고식』에 수록된 모든 조문과 조대를 상호 검토하고 분석한다면 정조와 김희락의 견해 차이 및 경전 해석의 특징 등을 조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日省錄』.

『正祖實錄』.

金熙洛, 『故寔』 「敬書嶠南賓興錄傳教後」.

金熙周, 『葛川集』

金澤榮, 『麗韓十家文鈔』.

柳致明, 『定齋集』.

李仁行, 『新野集』.

李義發, 『雲谷集』.

正祖, 『弘齋全書』.

### 2. 논저

김기엽, 「『교남빈흥록』의 판본과 御考·科賦·試券에 대한 소고」, 『동방한문학』 87, 2021.

김기엽, 「大山 李象靖 서찰의 편집 목적과 書節要類에 담긴 학맥의嫡傳 의식: 『大山先生書節要』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99, 2023.

김문식, 「정조대 柳台佐의 抄啓文臣 활동」, 『동양학』 76, 2019.

심경호, 「正祖의 經學類 書籍 御定·御命撰과 經學思想」, 『서지학보』 21, 1998.

심경호, 「학서 류이좌의 廣和와 應製에 관하여」, 『동양학』 76, 2019.

이시연, 「正祖의 주자학적 『大學』 해석과 聖王論」,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전성진, 「대산 이상정의 『중용』 해석과 성리설의 이해」, 『공자학』 47, 2022.

최석기, 「19세기 嶺南學派의 『中庸』分節說 考察」, 『동양한문학연구』 46, 2017.

### 3. 기타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https://www.ugyo.net>).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index.aks>).

## 국문초록

『고식(故寔)』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희락(金熙洛, 1672~1759)의 문집이다. 김희락은 초계문신(抄啟文臣)으로서 경사(經史) 및 『주자대전(朱子大全)』, 『국조고사(國朝故事)』을 비롯하여 선현들의 주차(奏劄) 가운데 왕도에 관계되는 견해를 정조에게 올렸다. 김희락의 문집인 『고식』의 내용은 대부분 김희락이 초계문신으로 활동하면서 정조의 명을 따라 지어 올렸던 글과 정조의 어비(御批)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글은 「중용강의(中庸講義)」이다. 『고식』 「중용강의」의 내용은 『홍재전서』 「경사강의(經史講義)·중용(中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희락의 문집 『고식』의 전반적인 구성은 조대(條對)라는 글쓰기의 전형(典型)을 남김으로써, 후대에 참고하기 위한佳作(佳作) 선집(選集)이나 유서(類書)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고식』은 일부 부록에 문인의 행장을 비롯하여 만사, 제문 등을 실음으로써 개인 문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고식』 권2에는 『중용』 서문부터 말미의 33장까지 「중용강의」에 관한 정조의 조문(條問)과 김희락의 조대(條對) 62항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다. 김희락은 조대에서 율곡(栗谷)이 혼륜설(渾淪說)만을 주장한다고 비판한 반면, 퇴계(退溪)는 혼륜설과 분개설(分開說)을 절충한 것으로 이해하고, 통간(通看)을 주장하면서 퇴계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식』 「중용강의」에는 김희락이 퇴계학맥을 이은 학자로서 영남 지역 선배의 학설을 두둔한 자취가 보이고, 영남 문인에게 용인되지 않은 학설에 대해서 완고한 경학관을 드러낸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은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김희락의 문집 『고식』에 주목하여 규장각 초계문신으로서 김희락의 조대가 수록된 문집 구성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고식』의 「중용강의」 내용을 검토하여 『홍재전서』에서 누락된 김희락의 조대(條對) 목록과 그 실재를 고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투고일 2024. 3. 20.

심사일 2024. 4. 17.

게재 확정일 2024. 5. 9.

주제어(keywords) 김희락(Kim Heerak), 고식(*Gosik*), 중용(Jungyong), 정조(Jeongjo), 초계문신(Scholar of Gyujanggak), 영남학파(Yeongnam school)

## Abstract

### A Study on Composition and Content of Replies to Questions in *Jungyong Gangui* from *Gosik* (故寔) by Kim Heerak

Kim, Giyeop

*Gosik* (故寔) is a collection of works by Heerak Kim (金熙洛, 1672~1759), who was a scholar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a scholar who studied at Gyujanggak, Kim dedicated King Jeongjo of the views related to the duties of king, among the appeals of ancient sages, including Confucian classics, historical records, Collection of Works by Zhu Xi (朱子大全), and Book of Personal Information of Gentry of Joseon Dynasty (國朝故事). *Gosik* by Kim consists of works he wrote under the order of King Jeongjo as the scholar of Gyujanggak and comments of King Jeongjo. Among them, *Jungyong Gangui* (a Discussion of the Doctrine of the Mean) took the largest proportion in *Gosik*. The content of *Jungyong Gangui* in *Gosik* is also found in *Hongjae Jeonseo*, *Gyeongsa Gangui* (經史講義), and *Jongyong* (中庸).

The overall composition of *Gosik* by Kim shows a standard writing style of Jodae (條對, replies to question), and it serves as of masterpiece, collection, and compilation for references of future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Gosik* also has characteristics of a personal collection of work as some of the appendix in *Gosik* includes historical tracks, events, and funeral rites of the scholar. Volume 2 of *Gosik* contains questions by King Jeongjo for *Jungyong Gangui* and 62 replies by Kim from preface to Chapter 33 of *Jungyong*.

In the replies to question, Kim pointed out that Yulgok (栗谷) only insisted Honlun Theory (渾淪說, Theory of Non-Separateness) while Toegye (退溪) compromised Honlun Theory and Bungae Theory (分開說, Theory of Distinction). Kim supported the theory of Toegye by claiming connection (通看). shows that Kim was a scholar who carried on the legacy of Toegye School, supported theory of scholars in Yeongnam region, and showed a strong thought on Confucian classic.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for focusing on the collection of works by Heerak Kim, *Gosik*, identifying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 of collection with replies to question by Kim as a scholar of Gyujanggak, reviewing the content of *Jungyong*



*Gangui* in *Gosik*, and reviewing the lists of Kim's replies to questions which were omitted in *Hongjae Jseonso*.